



보도시점 2026. 4. 22.(수) 11:00 배포 2026. 4. 22.(수) 09:00
4. 23.(목) 조간

‘스마트농업 데이터 AX활용’ 본격 추진

- 과기정통부의 국가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GPU 32장 확보
- 공공 AX데이터 구축과 민간 AI솔루션 개발 지원에 GPU 각 16장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32장의 GPU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가 인공지능 프로젝트 :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이행 등 범국가적 인공지능 혁신을 위해 부처별 사업과 연계하여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3천장)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며, '26년도 사업으로 25개 부처 52개 과제 최종 선정

농식품부는 GPU 32장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GPU 16장을 활용하여 농가의 작물 생육 사진·영상(이미지 파일)을 GPU 기반의 AI모델을 통해 판독하여 AI 학습용 생육 데이터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사람이 직접 측정하던 작물의 생육상태 판단의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스마트팜 데이터의 품질과 AX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GPU 16장은 스마트농업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제공하여 정부가 그간 구축한 스마트팜 데이터와 결합한 고품질 AI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기업 지원 방향과 활용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 시설원예·노지, 첨단 농기계 분야 AI솔루션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서 기업들은 시설원에 배액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재배 방향을 처방해주는 솔루션, 노지 스마트팜을 위해 지형 및 방대한 자연환경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GPU 활용 모델, 농작업 분야 퍼지컬 AI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AI 공용모델 개발 등 다양한 GPU 활용에 대한 수요를 제안하였다.

기업들은 이번 GPU 지원을 통해 대규모 연산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그간 개발에 제약이 있었던 고도화된 AI솔루션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구축한 스마트팜 데이터와 기업의 현장 데이터를 결합한 학습용 데이터셋이 축적되면, 데이터 품질 향상과 활용 생태계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요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고품질 AI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참여 기업 공모를 4월말에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5월부터 GPU를 최대 4장까지 배분하고, 정부가 구축한 스마트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AI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학습용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스마트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누리집 (<https://smartfarmkorea.net>, 스마트팜코리아)을 통해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기반도 동시에 넓혀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가 확보한 AI 인프라를 공공의 데이터 구축과 민간의 AI솔루션 개발에 함께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농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과 고품질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빅데이터전략팀	책임자	과장	박재화 (044-201-1420)
		담당자	사무관	박윤희 (044-201-1427)

스마트농업 데이터 AX활용을 위한 GPU 수요 협의회

